

그린나래



CONTENTS

[기획-코로나19]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목받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
-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전하는 완치 후 더 큰 고통
-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화성시청소년온라인진로박람회>
-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학교 축제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앙케트]

- 청소년의 소비습관 실태조사

[경제]

- 영화계 전체의 비상, “CGV측, 영화 관람 가격 인상”
- 음식만 배달하는 시대는 지났다, 배달 업계 대호황

[사회]

- 동물실험을 아직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브렉시트가 뭐예요?
- 흉악해지는 촉법소년 범죄, 이대로 관찰은가?
- 빠른 배송 뒤에 숨겨진 택배 노동자의 고충
-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 리더의 무게

[정책]

- 모두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문화]

- 게임으로 병을 치료한다고요?
- 이런 직업이 있다고요?!

[교육]

- 불가피한 온라인 수업, ‘학업 격차’ 어쩌나
- 자유학년제,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 ASMR 덕분에 나도 수능만점자

[환경]

- 우리 생활 속 다이너마이트(dynamite), 유증기 조심해야
- 이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연예]

- 뒷광고가 뭐길래... 사람을 속이진 맙시다.

그린나래 23호

- ◎ 발행기관 화성시청소년수련관
- ◎ 발 행 인 박찬열
- ◎ 편 집 인 전선민, 조유빈

화성시청소년기자단 12기

김건우(진안중1), 김태운(동탄중1), 이유진(병점중1), 이지민(진안중1),
이채령(푸른중1), 최인영(향남중1), 김세현(예당중2), 이채은(반송중2),
권형준(푸른중3), 최은빈(기산중3), 이태현(창의고1), 조연우(창의고1),
조유빈(봉담고1), 김민서(창의고2)



코로나19로 언택트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그에 걸맞는 바람직한 언택트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 중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은 서울대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설택’이다. 설택은 한 과목만 신청하더라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내신 문제를 제공하고, 9월부터는 순차적으로 모의고사와 수능 대비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이들은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이다. “서로 이동하지 않아도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온라인 과외의 편견을 완전히 없앤 수업이에요”, “서울대 쌤에게 과외 받고 싶던 학생들 이거 진짜 안 할 수 없을 걸요” 등 긍정적인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설택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이런 긍정적인 후기 반응에 힘입어 수업 재연장률이 90%에 달했고, 학생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했으며, 교사들의 만족도 또한 94점이나 됐다. 또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설택으로만 공부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 10명 중 7명 꼴로 많았다.

그런가 하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교사를 만나거나 수업이 늦어지거나 열의가 낮은 교사를 만나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했다는 반응도 있어 교사 선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필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 10일에는 화성시립도서관에 ‘언택트 도서관’이 오픈했다. ‘언택트 도서관, 시민과 컨택하다’라는 구호를 내세운 언택트 도서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그려보는 타일 벽화 아트’와 ‘시민의 생각을 기록하는 단어 사전 편찬’, ‘코로나19 시민과 함께하는 북버킷챌린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민의 생각을 기록하는 단어 사전 편찬’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민과 함께 코로나19에서 느끼는 감정, 생각, 느낌을 단어로 수집하고 사전으로 편찬해보는 지역 밀착형 공동작업 프로젝트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는 우리 삶에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언택트 시대에 맞춘 편안한 교육방식이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유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전하는 완치 후 더 큰 고통

확진자들이 전하는
'진짜 코로나' 이야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흔히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소문이 일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치사율이 낮을 뿐더러 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기만 한다면 회복도 빨리 되고 쉽게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문인 것이다. 그런데 확진자가 전한 퇴원 후 밝힌 이야기는 소문과 달랐다. 확진자의 이야기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20대 여성이 완치 후 글을 올렸다. 이 여성은 코로나19 양성판정 후 별다른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치유로 37일 만에 퇴원을 했다고 했다.

그는 “기침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있고 생리가 열흘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설사 후 미각을 잃는 등의 비교적 약한 증세가 있었다”고 하였고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정도 증세의 환자는 약을 복용하지 않을 시 회복이 더 빨랐다고 했다”라고 전하였고, 완치 판정 후 퇴원하였다.

하지만 고통은 퇴원 후 더 심각해졌다. 후유증으로 인한 증세로 인해 현재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며, 치료 중에는

누워서 쉬었으나 일상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후유증이 왔다고 하였다. 해당 여성은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갑갑해지며, 코부터 머리까지 울리는 것처럼 두통도 찾아오고 음식이 상했는지 구분이 안가 배탈도 났었다, 팔다리가 저릿저릿 하고 온몸에 기운이 없다”라고 전하였다.

확진자들이 완치 후 겪은 후유증은 신체적인 증세뿐 아니라 사회 관계 속에서도 나타났는데, 서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주변 동료들에게 인격모독성 차별을 들었다. “2주 더 있다오지 불안하게 왜 왔느냐”, “너 때문에 동일집단(코호트)이 격리됐다”며 완치 판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경계하는 말들과 원망 섞인 눈초리를 받은 것이다. 그는 9월 초에 17일간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완치 후 2주 간 자가격리를 하였지만 “동료들 사이에선 기한 없는 기피대상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전하였다.

이러한 확진자들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가 겪는 차별 등에 대한 고충을 확인하고,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최인영 기자





화성시청소년 온라인진로박람회, 같이 경험해 볼래?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온라인으로 돕다

지난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관내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화성시청소년온라인진로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청소년진로박람회는 기존의 진행 방법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방식인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엇이 되고 싶나요?'가 아닌 '무엇을 하고 싶나요?'라는 '동사형 꿈'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랜선 OT, 축하 공연, 강연콘서트, 전문 직업인 특강, 대학생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 사전신청을 한 청소년과 학부모라면 진로박람회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장 및 감상 가능했으며, 스타 멘토 특강, 청소년 강연콘서트, 직업 키트 체험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이루어졌다.

화성시에서 종사하는 직업인들로 구성된 전문 직업인 특강은 애견훈련사, 상담사, 팝아트 디자이너, 기자, 무대감독,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의 폭을 넓혀주어 특정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기회를 주었다. 또한 스타멘토 특강은 '하고 싶어요'와 '되고 싶어요'의

차이를 아시나요?'라는 주제로 방송인 타일러의 강의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구글러가 말하는 혁신' 조용민 구글 매니저까지 풍성하게 구성되었다. 청소년 강연콘서트는 화성시에서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강연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 누구보다 더 현실적인 조언과 공감, 응원을 보내주는 메시지를 주었다. 대학생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은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통해 학과 소개 및 학과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어느 적성이 해당 학과에 잘 맞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 학과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청소년온라인진로박람회는 언택트로 진행되어 참여 인원의 제한이 없었다는 점과, 한 가지 직업이 아닌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진로에 대한 지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되는 만큼 라이브로 진행되는 강연에서 마이크 볼륨이 계속 달라져서 듣기 불편했다는 등의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했다.

과거와 다르게 진로에 대한 확신성과 이해도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진로박람회는 자신이 관심 있거나 희망하는 진로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먼 미래를 보기 보다는 가까운 시점부터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 간단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진로가 보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했다. 온라인이지만 풍성했던 올 해 청소년진로박람회처럼 다음 청소년진로박람회를 더욱 기대해 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조유빈 기자



학교축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온라인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병점중학교 온라인 축제)



심해진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축제 시즌인 요즘, 대부분의 학교들은 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있다. 병점중학교에서도 지난 10월 27일 온라인 축제가 열렸는데, 축제 준비를 돕고 시청한 교사와 전교회장 배지원 학생, 부회장 이슬민 학생을 비롯한 방송부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보았다.

Q. (전교회장과 부회장에게)학교 온라인축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A. 축제 구성 및 계획과 대략적인 틀을 잡고 회의에 참가해 학교축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축제 현장에서는 학생회 현장 지휘와 개회, 폐회식 선언 및 사전 행사 수상자 발표 등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Q. (전교회장과 부회장에게)온라인축제와 대면 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학교 축제는 모든 학생이 즐기며 참여하는 활동인데, 이번에는 온라인축제로 참여하게 되어 화상 통화로 진행된 터라 모두가 참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흥미가 떨어지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Q. (전교회장과 부회장, 방송부 학생들에게)온라인축제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축제'를 진행하게 되어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대면축제에선 체험활동을 할 때 도움을 받고 싶더라도 강사 한 두명이 여러 명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점이 힘들었지만, 비대면으로는 자기 공간에서 원격으로 도움을 받거나 더 차분하게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인터뷰 대상자 모두에게)이번 온라인축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A. 플랫폼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오류가 너무 많이 나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중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학생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는 점과 시험기간으로 인해 시기가 적절치 못해 즐겁게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 다음 온라인 축제에선 시간의 제약 없이 더 길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융합발표회 때에는 이번 온라인축제에서 있었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학생회 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했던 축제 만큼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어 주지 못해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청소년의 소비습관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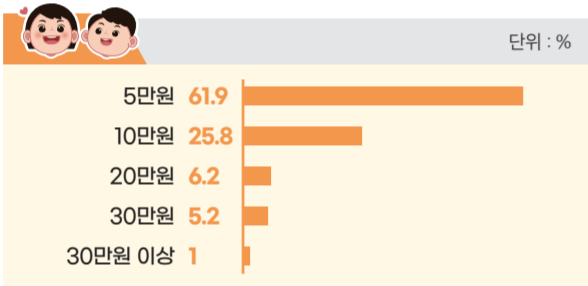
응답자 소개 화성시 관내 청소년 총 97명 (남자 : 37명/ 여자 : 60명)
14~16세(중학생) : 69명 / 17~19세(고등학생) : 28명
응답기간 2020. 11. 23 ~ 11. 26 **응답방법** 네이버 폼 (온라인 설문)

청소년이 소비의 주체가 되어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대에서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무분별한 공급에 따른 신뢰도 낮은 과장 광고 등이 만연해졌고, 청소년들을 겨냥한 광고들은 청소년을 자극하여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아직 명확한 경제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은 올바르게 소비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의 소비습관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화성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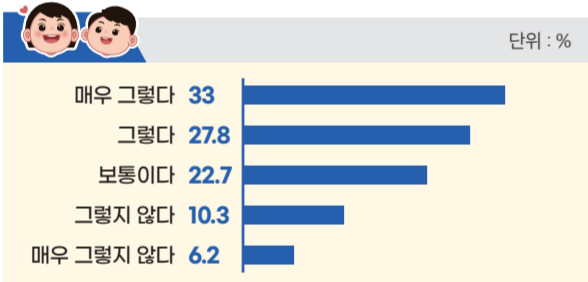
1. 용돈을 받는 주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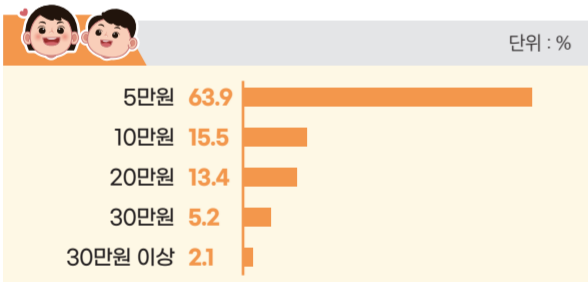
2. 한달을 기준으로 할 때 내 용돈금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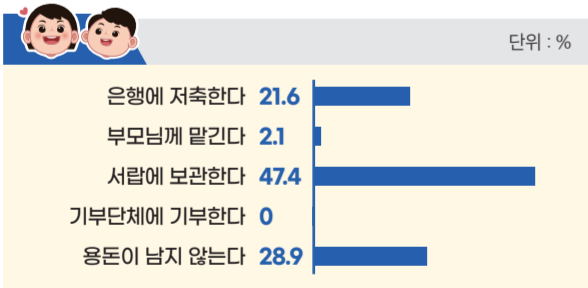
3. 현재 용돈의 액수에 만족하는가?



4. 한달을 기준으로 할 때 나의 소비 금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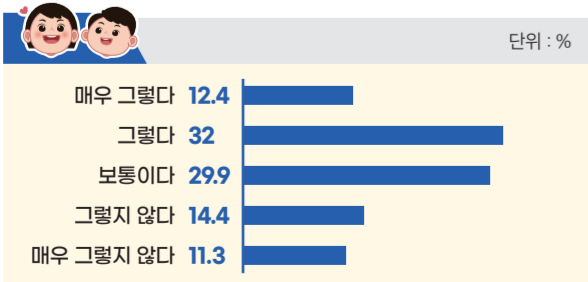
5. 남은 용돈은 어떻게 하는가?



6. 용돈을 받으면 소비 계획을 세우는가?



7. 계획없는 충동구매를 하는가?



응답자 중 42.3%가 가장 높은 비율로 용돈을 월1회 주기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기가 없이 필요할 때마다 받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월 단위로 주기적인 용돈을 받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지만, 꽤 많은 청소년들이 주기 없이 소비가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받아 별도의 계획 없이 소비를 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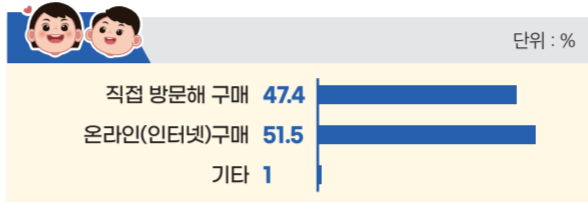
또한 상당수의 응답자가 한 달 기준으로 받는 용돈의 금액이 5만 원이라고 응답했고, 한 달 기준 소비금액 또한 5만 원인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용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용돈 금액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용돈에 대하여는 가장 많은 47.4%의 청소년이 서랍에 보관한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용돈이 남지 않는다고 28.9%의 청소년이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고 있으며, 남김없이 소비하는 청소년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은용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청소년은 21.6%에 그쳤다. 또한 용돈을 받으면 소비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거나 아주 가끔 세운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소비 계획을 세우지 않는 청소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응답자 중 상당수의 청소년이 계획 없는 충동구매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청소년이 거의 없고 경제관념과 소비 습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8. 용돈을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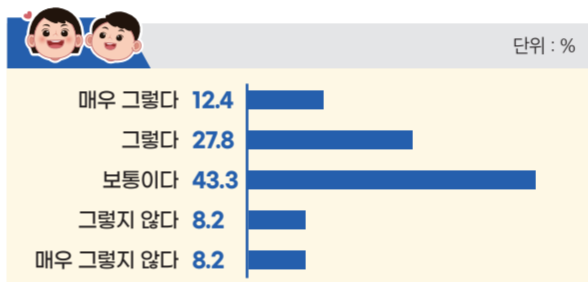
9. 자신이 자주 쓰는 소비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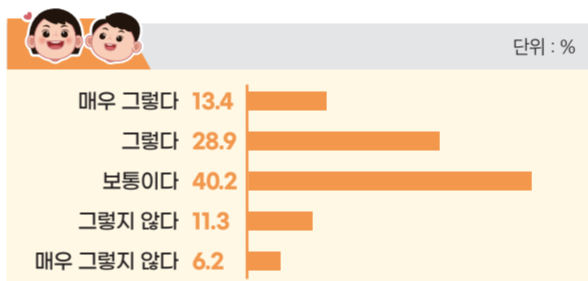
10. 옷이나 가방 등 물건을 구입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11. 나의 소비습관이 올바르게 생각하는가?



12. 올바른 소비습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설문의 결과로 볼 때, 용돈을 받는 청소년들은 대개 경제관념이나 소비 습관이 대체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소비 생활이 계속 된다면 청소년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올바른 소비를 하려면 소비 습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등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전년도부터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 해 2020년에는 청소년활동인증프로그램으로 등록하여 더욱 신뢰도 높고 알찬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소비습관은 교육을 통해 정립해야 함을 알아야 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체계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조유빈, 이채은 기자



영화계 전체의 비상, “CGV* 측, 영화 관람 가격 인상”

주말 영화 한 편에 만 삼천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가피한 가격 인상”

국내 3대 영화사 중 하나인 CGV가 지난 10월 26일부터 영화 관람 가격의 인상을 시행했다. 이와 동시에 CGV는 전국의 상영관 수도 점차 줄어나갈 예정이다.

CGV측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극장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등의 운영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영화계 전체의 어려움이 영화 관람 가격 인상의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화 제작사 측에서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극장에서의 개봉보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공개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들로 극장들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운영 방침으로 CGV는 평일 영화 관람 가격은 12,000원, 사람이 붐비는 주말(금~일요일)의 경우에는 평일보다 천원이 더 비싼 13,000원으로 원가 대비 약 1,000~2,000원을 인상했다. 또한 좌석(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에

따라 차등하여 가격을 달리 하는 좌석 차등제는 폐지되었으나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맨 앞쪽 좌석인 A열과 B열은 1,000원 할인 혜택을 유지한다. 동시에 운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는 지점들은 신중한 고려를 통해 운영 중단할 방침이다. 현 사태가 지속 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폐점 되는 지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GV의 영화 관람 가격 인상 소식을 접한 인터넷 누리꾼들과 소비자들은 “다 같이 힘든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왜 고려를 안 해주는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인하할 것인가...”, “이러면 굳이 극장가서 영화를 보겠나, 오히려 매출 감소할 것...”, “차라리 더 싼 넷플릭스로 감상하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영업자로서 공감된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CGV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민서 기자



음식만 배달하는 시대는 지났다,

배달 업계 대호황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나날이 발전하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소한 일들도 힘들어진 요즘, 음식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일상화와 근거리 소비 확산에 따라 배달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8월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1,780만 명으로 최다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용자 수 신장률도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곧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자가 늘면서 배달 서비스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조 원대로 추산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씨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일주일에 최소 2~3회 가량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조리된 음식 외에도 커피와 식자재, 과일 등 이용 품목이 다양하다.

이 씨는 “요즘은 나가서 무언가를 사 먹기가 힘들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자주 이

용한다.”고 말했다. 배달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이 씨의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이 증가하면서 대기업들도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대형마트 브랜드인 ‘이마트’는 점포에서 바로 조리한 음식을 배송 판매하는 ‘델리 쓱 배송’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전국 70여 개 이마트 델리 코너에서 즉석 조리한 음식을 SSG닷컴 이마트몰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대식품관 투훙을 통해 즉석조리식품 배달을 시작한 현대백화점은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7월 식당가나 델리 매장에서 즉석 조리한 상품을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바로투훙’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바로투훙의 최근 2주 간 주문 건수는 (무역센터점의 경우) 오픈 이후 2주 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었고, 목표 건수도 50%를 초과 달성했다. 이처럼 백화점과 마트까지 즉석조리식품 온라인 판매에 힘을 주는 것은 배달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배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다. 코로나19 발생 전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배달 주문 비중은 치킨, 피자, 떡볶이, 중국 음식 등 주로 패스트푸드에 무게중심이 기울어 있었지만, 현재에는 각종 식자재부터 디저트까지 매우 다양한 상품들을 주문하여 받아볼 수 있다.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배달 산업의 호황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은 기자

동물실험을 아직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제는 제발 멈춰야 하는 동물실험



‘펫미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가? 펫미족은 Pet=Me, 바로 애완동물을 자신처럼 아끼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애완동물을 자신처럼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생긴 신조어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동물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동물실험에 쓰이고 있는 종은 마우스(mouse), 흰쥐(Rat), 햄스터, 기타 설치류, 기니피그 고양이, 개, 토끼 등이 있다.

국내 동물 실험 건수는 2014년부터 5년간 약 70% 늘어나며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5년 251만 마리, 2016년 288만 마리, 2017년 308만 마리, 2018년엔 372만 7,163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동물실험에 쓰인 개체 수 중 쥐는 무려 371만 마리에 달했다.

물론 약은 질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어느 형태로든 부작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개발할 때에는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 목숨을 잃는 사람을 줄이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아픔을 덜기 위해 동물에게 먼저 투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치료법을 발견해 많은 생명을 살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은 신체구조도 다르고 병이 발생하는 과정, 증상, 치유법도 모두 다르다.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인간이 가진 약 30,000여 가지의 질병 중에 동물과 공유하는 것은 1.16%에 불과하다. 즉 동물 실험의 결과는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간에게 임상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부작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에게 고통만 주는 실험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또한 동물실험을 할 경우 기본 원칙인 3R(대체, 축소, 고통 완화)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 윤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물 또한 인간만큼 존엄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동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백신과 각종 치료에 필요한 약을 개발할 수 있었고 앞으로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동물실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화장품 생산 실험의 경우 세포를 이용한 각막 실험, 인공 각막 배양 세포 대체 실험, 인공 배양피부 대체실험 등의 진행이 더 정확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실험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동물실험을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물건을 쓰는 데까지 실험만 받다가 죽게 되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현대의 과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동물실험을 대신할 다른 방법을 찾는 데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조유빈, 최인영 기자

★ ★ ★ ★ 브렉시트가 뭐예요?

영국, 지난 1월 31일 유럽연합 탈퇴

국제사회 영향 끼칠지 귀추 주목 ✓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를 실행하였다. “브렉시트”(Brexit)라는 말을 아는가?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브렉시트는 2016년 진행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의 52%가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결정되었다. 이후 영국의 브렉시트는 여러 언론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브렉시트가 발생한 이유는 이러하다. 영국은 유럽연합국 중 매년 약 31조 가량의 막대한 분담금(유럽연합 중 2번째)을 지급하지만 정작 유럽연합을 주도하지 못하였고, 더불어 유럽연합 이민 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매년 약 10%씩 늘어나면서 자국민들의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내에서는 자연히 브렉시트 찬성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론에 박차를 얻어 영국의 총리가 브렉시트를 발표하게 되고, 영국은 본래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을 탈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작 브렉시트라는 위기가 다가오니 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실제로 2016년 브렉시트의 개표 방송이 시작되며 브렉시트에 대해 찬성의 표가 강세로 나오자 파운드화의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영국 현지 언론인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국 파운드화의 주요 환율인 파운드-유로, 파운드-달러, 파운드-엔, 셋 다 급락하였다. 이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돈의 가치, 즉 영국의

국력이 하락하였음을 몸소 증명했다. 영국 하원은 결국 2017년 11월 22일, 영국의 경제 대국 5위 자리를 프랑스가 차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덤으로 GDP 성장률은 애초 예상했던 2%에서 1.5%로 떨어졌다고 한다.



한편 당사자인 영국 시민들의 목소리도 둘로 갈라지고 말았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유럽 연합 잔류를 원한 반면, 노년층은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탈퇴할 것을 지지하였다 또한 수도인 런던과 영국 내의 중요한 한 축인 스코틀랜드에서는 잔류를 희망하는 의사를 내보였으나, 영국 내의 지역에서는 브렉시트의 탈퇴 여론이 더욱 우세하였다.

이런 와중에 현 총리 보리스 존슨은 2019년에 ‘브렉시트 실시’를 목표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으며 총리에 당선되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실시하면 영국이 단결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영국 국민의 막강한 잠재력이 발휘될 것’이라 주장하며 브렉시트에 대한 강한 의사를 드러냈다.

결국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각)를 기준으로 유럽연합에서 전격 탈퇴하였다. 현재의 유럽연합 대부분의 법은 영국에게 12월 31일까지 지속되는 이유 때문에 영국은 하루빨리 이 시기까지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2020년 12월 31일 이후 영국,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영국이 정신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브렉시트가 마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현 기자

흉악해지는 촉법소년 범죄, 이대로 관망은가



현대 사회에 맞춰
소년법 개정 필요

지난 3월, 대전 동구에서 청소년이 운전하는 차에 사람이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청소년들은 렌터카를 훔쳐 운전하던 중에 경찰 검문에 걸리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고, 피해자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자는 생활비를 벌고자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학생으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사망 사고를 낸 가해 청소년들의 사건 당시 나이는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억울하게 사망했음에도 범죄자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단순 절도나 학교폭력에 그치지 않고 집단 성폭행 또는 살인 등 흉악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행을 저질러도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뿐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법이 흉악한 가해자인 이들을 다시 사회에 놓아주는 것이다.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범법 행위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은 7,364건이다. 2017년 7,533건(강력범죄 447건)보다 전체 건수는 줄어든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450건으로 늘어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미성년자 범죄 중 12%였던 촉법소년 비중은 2018년 14%로 증가했다. 이처럼 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죄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악용하여 더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같은 약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들을 감싸주기만 할 뿐 재발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한편 지난 5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은 촉법소년의 연령이 미국, 독일이나 일본 같은 대륙법 기준에 맞춰서 14세로서 조금 더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13세로 하향하는 안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며, 교육부도 올해 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조유빈 기자



빠른 배송 뒤에 숨겨진 “택배 노동자의 고충”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목소리 높아 ..

올해 벌써 14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소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택배 물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 노동자들이 몇 시간씩 과로하며 택배 작업까지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작업 양과 시간에 대비되는 적은 임금이다. 이처럼 과로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점이 택배 노동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택배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와 다르게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고용직으로, 주 52시간 근무 등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택배 노동자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게 물량을 소화하는 중이다.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실시한 택배 노동자 현장, 인권, 노동실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중 4명

중 3명이 혹한기, 혹서기 때 난로, 선풍기도 없이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붕이 없어서 비 또는 눈을 맞으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배송할 구역이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약 80%가 수취인이 배송



받기 원하는 수령지로 배송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을 들을 뿐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은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고용 노동부의 택배 노동자 업무 여건 및 건강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수기에 택배 노동자들 중 10명 중 4명이 하루 근무 시간이 14시간 이상, 주당 근무 일수가 6일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200개 이상의 배송 물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하루 중 휴게시간은 30분 이내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인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 또한 취약하다. 지난 10월, 한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다. 그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대리점에 유리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었다. 그는 대리점에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300만원을 내는 부당한 계약으로 일했으며, 대리점은 그의 담당 구역은 택배 노동자 모집이 불가함에도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택배 노동자의 고용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과 처우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CJ택배기사취업센터 측에서는 과로사를 막는다고 배송 시간을 의무적으로 줄인다면 제한 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과로사라는 문제를 막고자 하면 생활고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차원에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 빠름을 강요하는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로켓 배송이나 당일 배송은 소비자의 욕구를 위한 것으로 택배 노동자에게는 지옥의 연속임을 소비자들이 직시해야 한다. 택배 노동자는 감사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다.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시작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생겨날 것을 바라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권형준, 김민서 기자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 리더의 무게

[리더를 믿어주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

지난 10월, 손혁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하 손혁 감독)이 감독 부임 10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손혁 감독은 당시 팀 순위가 3위라는 상위권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진의 이유로 사퇴했다. 또 지난 6월 10개 팀 중 9위라는 성적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염경엽 감독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프로 스포츠에서는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독들이 사퇴를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 팀의 감독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임된 인물이라는 자부심도 크고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명예가 따라오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특히 경기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성적에 신경을 써야 하며, 한 선수단을 이끌어야 함과 동시에 팬들의 다양한 여론까지 살펴야 한다. 거의 모든 프로 스포츠 경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경기가 있기 때문에 매일 승부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한 팀의 수장이라는 지위가 있지만 매 시즌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것이 감독의 현실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 프로 스포츠 사령탑들의 최근 3년의 평균 재임 기간은 2년 10개월(34개월)이다. 이는 많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짧은 기간으로, 팬들이 프로 스포츠 감독을 성적이라는 지표로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스포츠 분야의 감독 외에 청소년의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감독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리더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각 학교의 선생님들부터 화성시 청소년들에게 꿈과 터전이 되는 화성시청 소년수련관장, 화성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해 힘쓰는 화성시장까지 다양하다. 그들은 한 분야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직원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무와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우리는 단순히 보이는 업적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중학교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선생님은 우선 자신이 리더로서 하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고 한 해 동안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반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더로서 힘든 점은 모든 학생들에게 개개인으로 신경 쓰지 못하는 점과 공정하게 학생들을 대해야 하는 점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반을 위해서 하려는 일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학생들에게 전달 되어질 때 자신의 리더십이 무력화되었음을 느낀다고 했다.

리더라는 존재는 말 뜻대로 다른 이를 이끄는 지지자이고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을 지도록, 성과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한 조직의 책임자로서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단체의 일원이면서 조직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줘야 한다. 리더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그의 의견을 믿고 지지하며 그의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권형준 기자



점점 추워지는 겨울날씨로 따뜻한 온기의 소중함이 새삼스레 느껴지지만,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들은 난방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마저 쌀쌀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겨울철 난방에너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2015년 처음 시행된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에너지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도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구들 중에서도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인 경우에도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동안으로, 기간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겨울 바우처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계절인 여름에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와 에너지바우처 카카오톡 채널 등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과 같은 복지 정책들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혼자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따뜻한 사회가 아닐까.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령 기자





21세기는 바야흐로 ‘디지털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부터 화상 회의를 통한 업무까지 디지털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하다 못해 이젠 디지털로 병을 치료하기까지 한다면 믿겠는가?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바로 ‘디지털 치료제’이다. 만약 디지털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특정 질병에 대한 처방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치료제’란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게임·가상현실(VR)·인공지능 등 고품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실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또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evidence based therapeutic intervention)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의약품과 동일한 트랙으로 임상 등을 거쳐서 안전성과 안정성, 효능이 확인될 때에만 판매 가능하다.

그렇다면 디지털 치료제는 어느 분야에 쓰일까? 1997년과 2005년, 디지털 치료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버추얼 베트남’과 ‘버추얼 이라크’가 개발되었다.

이것들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군인들에게 처방된 VR 디지털 치료제로, 트라우마 상황을 떠올려야 하는 PTSD 특성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를 떠올려야 하는데, VR을 통해 그 상황을 보게 되어 억지로 기억을 떠올리며 고통을 받지 않고 떠올릴 수 있게 되자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 이 처방 이후 PTSD를 겪고 있던 20명의 군인 모두 우울증 증세가 확연히 나아졌고, 그 중 16명은 PTSD 증세가 완벽히 없어졌다.

디지털 치료제는 일반 의약품에 비해 더욱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값이 싸고, 치료하는데 거부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강점에 가려진 디지털 치료제의 회의적인 시각도 놓칠 수 없는데, 기존의 약물 방식의 제약회사가 견제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누군가 디지털 상으로 정보나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그 디지털 프로그램이나 처방전을 해킹하면 처방을 받은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당사자의 병과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디지털 치료제가 발전되어 다양한 변화를 거쳐 디지털 치료제의 미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훗날 디지털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도 거뜬히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어 ‘디지털’이라는 점 때문에 해킹 혹은 정보 조작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겨내고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상용화가 되는 날을 마음속으로 그려 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조연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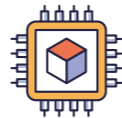


워터 슬라이드 레스터 부터
방탈출 기획자 까지!

이런 직업이 있다고요?!



다양한 이색 직업의 세계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한다. 직업의 세계가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널리 알려진 직업들만을 생각하며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업 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금은 특이하고 특별한 이색 직업들도 존재한다. 진로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민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 즐기면서 괜찮은 수입을 기대할만한 직업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이색 직업은 워터슬라이드 테스터이다. 워터슬라이드 테스터는 영국의 직업으로, 새로 개발된 워터슬라이드를 탑승한 후 평가 및 소셜 미디어에 홍보를 해주는 일을 한다.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서류는 서면으로 된 구직지원서가 아닌 30초 길이의 동영상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연봉은 2만 파운드(약 3,400만 원)로 대한민국 평균 연봉 정도의 수준이다. 지원자의 창의적이고 활발한 성격과 발상을 중점으로 본다고 하니, 평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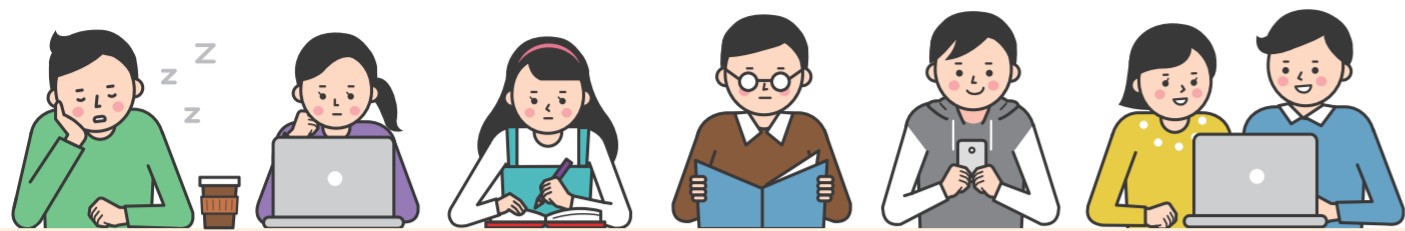
긍정적이고 물과 스릴을 좋아한다면 지원해볼만한 직업이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이색 직업은 방탈출 카페 기획자이다. 방탈출 카페 기획자는 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인기가 많아진 방탈출 카페의 테마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또한 영화나 예능 등 방탈출 장르의 시나리오를 돕는 일을 하기도 한다. 초봉은 3000만 원 정도로, 방탈출을 기획할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 또는 방탈출 마니아라면 눈여겨볼만한 직업이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이색 직업은 인형 의사이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치료해주듯이 인형의사는 오래된 인형이 낡고 해지면 처음 인형의 모습으로 돌려주는 일을 한다. 인형의사는 무작정 인형을 새 것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형의 주인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으로 되돌려준다. 인형의사들은 건당 6천 원~6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으며, 이들은 사람들이 인형을 돌려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인형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추억을 아껴주며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면 인형의사라는 직업에 알맞을 것이다.

이 밖에도 말의 발굽을 교체해주는 장제사, 물속에 빠진 골프공을 찾아주는 골프공 다이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대행해주는 프레젠테이터, 물의 맛과 냄새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워터 소믈리에 등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특별한 이색 직업들이 존재한다. 잘 알려진 직업에 갇혀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지 말고 이러한 이색 직업들을 탐색해보며 새롭고 특별한 나만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령 기자



불가피한 온라인 수업, '학습 격차' 어쩌나



코로나19로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많아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학교의 모습, 바로 온라인 수업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학생과 교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방법이 간편하고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업과 학습 목적 외에 게임, 채팅 등 놀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함께 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도 함께 증가했다.

미디어 유형별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 조사 결과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SNS 등 모든 유형의 미디어 사용이 늘었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과 동영상 시청이 많이 증가했다.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기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었지만, 온라인 수업 전환 후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으로 평균 1시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시청은 기존 평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에서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수업은 수업 집중도에서 오프라인 수업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에 학습 격차가 벌어지기도 한다. 교사가 온라인으로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도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집중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평소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수업에서 불가피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점도 학습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수업 시간임에도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은 오프라인 수업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오프라인 수업보다 교사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정○○씨는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보다 집중이 되지 않아서 수업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온라인 수업에서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른 규제사항 없이 온전히 학생들의 의지에만 맡겨 수업을 진행하므로 오프라인 수업보다 비효율적인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 번에 수많은 학생이 동시에 같은 서버에 접속하기에 사양이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기기가 튕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중요한 내용을 듣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에 매시간 하는 출석 체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학교 교사 이○○씨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원격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현석 교육장은 “온라인 교실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변화 속에서 놓쳐선 안 될 미래 교육의 핵심과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한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은 기자

자유학년제,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흔히 자유학년제 활동을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

2018년 도입된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년 간 지필고사 대신 참여형 수업과 체험활동 및 진로탐색 등 개인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따라서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유학년제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한다.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점중학교 1학년 ○○○ 학생과 푸른중학교 1학년 □□□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 해 보았다.

현재 자유학년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모두 “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며 현재 자유학년제 활동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는 질문에는 두 학생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활동들에 제약이 따라서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라며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유학년제를 진행하며 겪은 아쉬운 점이나 불만이 있냐는 질문에 병점중학교 1학년 ○○○ 학생은 “과목 자율수업 같은 거 할 때 선택순으로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수업을 들어가야 했어요. 그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라며 불편했던 점을 말했는데, 자유학년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두 학생 모두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자유학년제를 통해 자신의 꿈에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며 자유학년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자유학년제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 학생은 “프로그램 선택할 때 어떤 분야의 인원이 좀 많더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최대한 다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했고, 푸른중학교 1학년 □□□ 학생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다른데 직접 그 분야를 선택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정해준 것 내에서 해야 하니까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측에서 학생 대상으로 관심 분야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체험은 무엇인지 의견을 받는 다든지 여러 방법을 이용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했다.

인터뷰 내용과 같이 현재 자유학년제의 운영 방식은 학교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꿈을 찾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 체험들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더욱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최적화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령, 이유진 기자

ASMR 덕분에 나도 수능만점자!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된다면

나에게 맞는 “ASMR” 을 들어보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동시에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ASMR 공부법’이 이목을 끌고 있다.

“ASMR”이란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혹은 인지적 자극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형언하기 어려운 심리적 안정감이나 감각적 경험을 일컫는 말이다. 흔히 심리 안정과 집중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백색소음 등의 새로운 활용으로 볼 수도 있다.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으로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을 제공해 준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송영준 씨(서울대 자유전공학부 1학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공부 ASMR’을 유튜브에 공개해 화제다. 송씨는 “팬데믹 시대

가 오면서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ASMR 공부법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시간 30분 가량의 ASMR 영상에는 송 씨가 묵묵하게 공부하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필 소리, 책 넘기는 소리 등이 흘러나온다. 영상 하단에는 함께 공부한 시간이 표시돼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한편 송 씨는 수험생들을 위해 자신만의 공부 비법도 소개했다.

“자기를 다스리고 달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 시작은 좋아하는 과목부터 하되 한 과목을 길지 않게 하도록 하고 과목별로 1시간씩 공부 시간을 짧게 하면 효율적입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는 시간이 많아 불안하다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욕을 해줄 사람도 칭찬해 줄 사람도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들수록 내가 노력을 통해 얻는 대가가 크겠거니 생각하고 ‘내가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모의고사 볼 때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고, 공부 시간을 미리 할당해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문학 공부 시간을 30분으로 정해놓았다면 그 만큼만 하면 되고, 더 할 수 있을 때에는 더 하면 좋습니다.”라고 자신이 겪었던 공부비법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지만, 앞서 소개한 ASMR 공부법을 이용해 또 다른 ASMR 수능 만점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현, 이지민 기자

우리 생활 속

다이너마이트, 유증기 조심해야



《 관련 사고 급증, 유의사항 숙지하면 '안전' 》

혹시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나는 기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가? 이 냄새는 유증기 유출로 인한 오염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증기란 입자의 크기가 1~10 μ m(마이크로미터)인 기름방울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유증기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활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일까?

유증기는 연료유, 윤활유 등이 미세한 틈으로 분사되어 생성되거나 혹은 배관 등으로부터 유출되어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고열의 장비에 접촉함으로써 기화된 후 보다 낮은 온도의 공기와 만나서 생성된다. 유증기가 존재하는 사례들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표적인 예가 세탁소다. 세탁소에서는 옷을 세탁한 후 기름 성분의 세제에서 묻어나오는 유증기가 존재한다.

또한 주유소는 유증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장소다. 휘발유의 끓는점은 약 30~200℃로 상온에서도 쉽게 증발한다. 휘발유는 주유 중 호스와의 마찰로 인해 일부가 증발하기도 하며, 기체 상태로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기화된 유증기의 농도가 폭발 하한점에 이르게 되면 발화점보다 높은 열원이나 정전기에 의한 불꽃에 접촉하여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서 유증기가 존재하는 주유소, 세탁소 등에서는 베어링 온도 감시 장비, 유증기 회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셀프 주유소에서는 이와 별도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유 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정전기 방지 패드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증기는 우리 주변에 있으며, 따라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 사고 또한 주변에서 종종 일어난다. 지난 4월 이천의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원인은 바로 유증기였다. 건물 내에 우레탄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성분이 서로 분해하며 화학반응을 일으켰고 유증기가 발생했는데, 이때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 작업에 쓰이는 불꽃을 만나 폭발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상처를 입었다. 2018년 10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떨어진 풍등의 열기가 잔디에 옮겨붙으며 많은 양의 유증기 탱크와 만나 화재로 이어진 사건이다. 유증기가 열원이나 정전기와 만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렇다면 화재를 일으키는 유증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유증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는 셀프 주유 시 반드시 정전기 방지 패드를 사용하고, 주유 시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탁소에서도 유증기 회수 설비를 설치하고, 먼지가 쌓여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증기를 항상 조심해야 하며, 유증기가 있는 곳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지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권형준 기자

이런 것들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 최근 재개관한 화성시エコ센터를 가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관 중이던 화성시エコ센터가 최근 재개관했다.エコ센터는 재개관과 함께 환경지수를 높이는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였고, 이 교육은 가족 단위 방문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유팩과 폐건전지를 새것으로 바꿔주는 일도 한다. 화성시エコ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폐건전지의 양이 1만 5,272t에 이르지만 수

거되는 비율은 전체의 약 7%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93%는 매립되거나 소각,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다. 폐건전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환경보호도 가능하다. 이에 화성시エコ센터는 폐건전지 1kg을 제출하면 새 건전지 6세트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폐건전지 수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밖에 버려지는 나무를 이용해 찻잔 받침을 만드는 활동, 기부 받은 인형을 판매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쉽게 버려지는 인형이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가치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인형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한편 화성시エコ센터 외부에 있는 빗물 저금통도 흥미롭다. 이 빗물 저금통은 쉽게 말해 빗물 저장 탱크인데, 이곳에 모인 빗물은 텃밭과 화단을 가꾸기,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한다. 내리는 빗물 하나도 쉽게 흘려버리지 않고 의미 있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환경인형극 또는 가족 목공체험이 진행된다.

화성시エコ센터에서는 운영 중에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유진 기자

뒷광고가 뭐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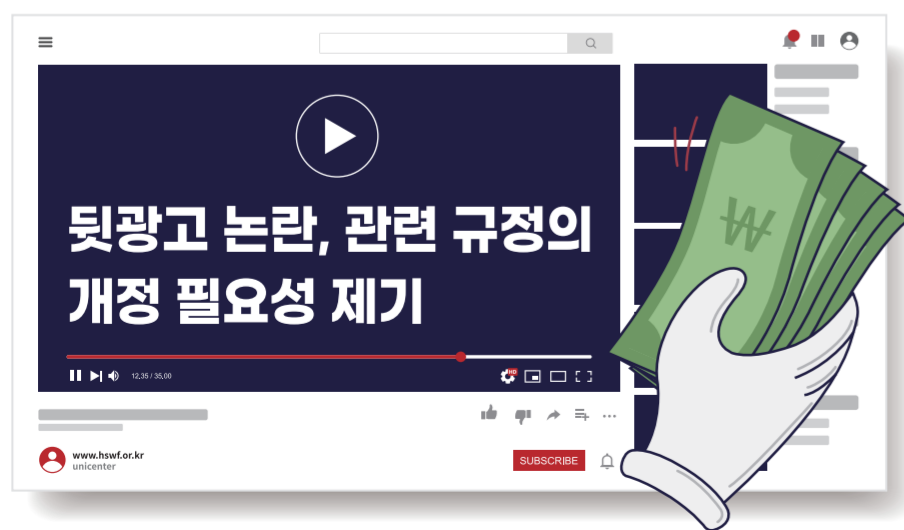


사람을 속이진 맙시다!

요즘 각종 언론과 매체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뒷광고’, 뒷광고란 무엇일까? 뒷광고는 일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 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심지어 광고인 것을 부인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뒷광고’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각종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의 화두가 커지고 있다. 뒷광고는 처음 PPL에 있어 몇 명의 유튜버들이 논란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커지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특정 유튜버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게 되었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사과영상 또는 사과문을 올린다. 다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잠시 동안 자숙을 하느냐, 금세 활동을 재개 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다. 또 사과 이후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이 활동하던 소셜미디어에 속속들이 복귀를 하고 있다. 이에 대

한 이유가 유튜브의 경우 6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을 시 수익이 중지된다는 점을 인지해 기한 내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과를 하지 않



는 경우로는 자신이 활동하던 곳이 아닌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복귀한다던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 등이 있다. 사과문을 올린 후 일정 기간 자숙을 하고 난 유튜버들은 대부분 복귀를 하고 정상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런 뒷광고를 한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등은 처벌을 받을까? 아직까지의 법률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이러한 행위를 한 후의 처벌은 표시광고법 제17조 벌칙 규정에 따라 “부당광고를 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정해져 있다. 이 말인즉슨 뒷광고를 실시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아닌, 광고를 하게 허락해 준 사업자만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 즉 유명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뒷광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콘텐츠가 광고임을 대놓고 부정하면서 광고를 했다는 부도덕한 행실이기 때문이다. 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자신의 협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뒷광고의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를 예로 들자면, 해당 채널의 구독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즉 방송 산업 전체의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해당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뒷광고가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믿고 구독하며 시청했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꽤 씁쓸하고 용서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알박한 잔머리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며 소통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현, 이지민 기자